



광산구 광산동에 있는 월봉서원은 고봉 기대승의 학덕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서세 450주년... 다시 고봉을 만나다

〈逝世〉

광산구·한국학호남진흥원 행사

17일 서울 국회회관

‘아시아 서원 헤드쿼터 선포식’

토크 콘서트·서원 체험 등

23~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서원음악회·강연·학술대회

메타버스 월봉서원·문헌전



고봉 문화제에서 열린 월봉서원 음악회 장면.

〈광산구 제공〉

올해는 고봉 기대승 서세(逝世) 450주년이 되는 해다. 고봉 선생이 1527년 태어나 1572년 세상을 떠났으니 올해로 벌써 450주년이 된다.

고봉은 조선 유학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유학자이다. 특히 1558년 이황과의 만남과 편지를 통한 교류는 고봉의 사상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운데 사칠논변은 조선유학사상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논쟁이다.

고봉 기대승 서세 45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가 ‘다시 고봉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을 비롯해 빛고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최하고 문화재청, 전남도, 광주시가 후원한다.

#17일 여의도 국회회관

광산구 주관으로 오는 17일(오전 10시 50분)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열리는 행사는 문화재 활용 성과 발표와 식전 공연, 주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서원 헤드쿼터 선포식’이 있을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아시아 서원 헤드쿼터 선포식은 ‘오래된 미래, 모두의 월봉’을 내용으로 진행되며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선언을 하고 주요 내빈이 서명 퍼포먼스를 펼친다. 내빈으로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을 비롯해 이병훈 의원, 민형배 의원, 이용빈 의원,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전 공연은 공연팀이 ‘선비, 월봉을 노닐다’를

통해 월봉서원을 매개로 펼쳐졌던 고봉 선양 관련 프로그램을 알릴 계획이다. 이어 광산구 문화재 활용 성과 보고회와 개회사, 환영사, 아시아 서원 헤드쿼터 선포식이 펼쳐진다. 이어 공연팀이 ‘선비, 아시아를 노닐다’를 주제로 공연을 선보이고 박석무 다산연구소장이 ‘살롱드 월봉1’ 프로그램 일환으로 ‘고봉을 이야기하다’를 주제 발표한다.

이어 ‘살롱드 월봉2’ 프로그램 일환으로 ‘두개의 달 脾氣’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김경호 전남대 교수, 안남일 고려대 교수, 오치훈 유오케이 대표,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이 참석한다. 또한 사칠논변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문화창작소그레이스가 펼쳐 관객들에게 고봉과 퇴계의 인연과 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의원회관 밖에서는 ‘메타버스 월봉서원 전시’, ‘선비 茶-茶時 체험’, ‘16세기 고봉과 친구들 포토존’, ‘서원 교류 사진전 및 문헌전’, ‘선비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23일 대중강연 김대중컨벤션센터

오전 10시에 앙상블단체가 주축이 돼 식전 공연으로 서원음악회가 열린다. 본격적인 학술 행사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30분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중강연 프로그램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관한다.

이어 일 페아르트가 고봉 시 낭송 및 창작가곡을 들려준다. 주홍 작가는 고봉의 삶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를 상영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대중강연이 펼쳐진다. 이항준 전남대 교수, 윤사순 대한민국의학원 회원, 오종일 전주대 명예교수, 김병일 월봉서원도산서원장이 발표한다. 이후에는 고봉사상을 주제로 한 토크쇼가 열린다.

컨벤션센터 밖에서는 ‘메타버스 월봉서원 전시’를 비롯해 ‘16세기 고봉과 친구들 포토존’,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체험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4일 학술대회 김대중컨벤션센터

고봉의 학술을 학자들이 다채롭게 조명하는 학술대회는 오후 1시 김찬균 전남대 교수의 개회식으로 시작한다.

학술발표 1부는 ‘심(心), 정(情), 치(治)’를 내용으로 하는 발표가 진행된다. 이원석 전남대 교수, 김나진 진주교육대 교수, 김기현 전남대 교수, 정세현 전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학술발표 2부는 서영이 군산대 교수, 이규필 경북대 교수, 이숙인 서울대 교수가 ‘시(詩), 가(家)’를 세부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 발표 이후에는 창작 가곡 공연이 이어진다. 일 페아르트가 ‘고봉의 노래, 오래된 향기’를 주제로 공연을 하고 이후에는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학술대회 종합 토론이 있을 계획이다.

실외에서는 체험프로그램 ‘메타버스 월봉서원 전시’, ‘서원교류 사진전 및 문헌전’,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체험존’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루오’전.

즐거라 누리라 ‘루오’전 수험생 할인

전남도립미술관, 17~27일 할인·무료 이벤트

전남도립미술관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맞아 수험생을 위한 할인 및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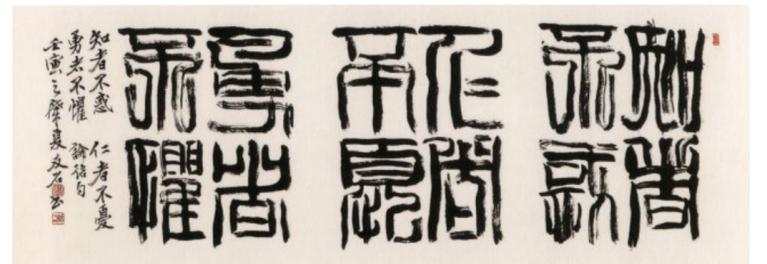
이번 이벤트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본인 명의의 수험표를 지참하면 티켓 할인과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시는 국제 특별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2023년 1월29일까지)전과 연계전시 ‘조르주 루오와 한국미술’전이다. 현대미술의 거장 조르주 루오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작품에 담

은 작가로 이번 전시에는 품피두 센터와 조르주 루오재단에서 대여한 20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면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무료 입장 가능한 전시는 광양 출신 이경모 사진작가가 남긴 사진을 역사적·예술적·미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경모 사진전’과 소장품 상설전 ‘흙과 몸’전이다.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도슨트 해설 오전 11시, 오후 1시30분~3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論語’ 중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선인들의 지혜 담긴 글...박신근 서예전

16일까지 금호갤러리

우석(友石) 박신근 서예전이 16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2년 이후 20년만에 갖는 개인전으로 모두 80여점의 작품이 나왔다.

박 작가는 ‘논어’, ‘채근담’, ‘맹자’, ‘명심보감’, ‘대학’ 등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에서 발췌한 글들을 다양한 서체로 보여준다. 또 굴원의 시 ‘어부사(漁父辭)’, 퇴계 선생 시, 범대순의 시 ‘무등산송’, 성서의 한구절 등도 선보인다.

작품에는 다양한 서체의 글씨 뿐 아니라 수묵의 매력을 살린 그림도 함께 담겼으며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글씨·그림과 어울린 작품도 눈길을 끈다.

고(故) 학정 이돈홍 선생을 사사한 박 작가는 1988년부터 우석 서예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작가는 “서예는 역사가 깊은 동양 특유의 문자예술로 작가의 사상과 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진속하게 즐길 수 있는 명구(名句)들을 엄선해 작업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서예대전·광주시미술대전·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인 박 작가는 푸랑크푸르트 한국문화원, 광주 남봉갤러리 등에서 10여차례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었으며 제1회 광주서예인상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臥遊山水’

상상력 자극 ‘이두환 작가와 떠나는 수수께끼 여행’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2023년 2월 26일까지

아이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이두환 작가를 초청, 어린이 전시를 열고 있다.

‘이두환 작가와 떠나는 수수께끼 여행’ (2023년 2월 26일까지)전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전시다. 이두환 작가는 토끼 등 동물의 형상을 빚대어 현대인의 초상과 인간의 관계 맺기,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번 전시작들은 이 작가가 그려놓은 토끼 형상에 아이들이 자신만의 얼굴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환상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는 현실과 환상의 세계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소설 속 주인공 앨리스는 환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의 캐릭터들을 만나는데, 생명이 없는 카드까지도 살아있는 개체로 그려진다.

전시장에는 앨리스가 경험했던 것같은 대형 체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리는 어린이 전시 ‘이두환 작가와 떠나는 수수께끼 여행’.

스판이 설치돼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체스의 말이 돼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멋진 모자와 안경을 쓴 토끼 등 이두환 작가가 창조한 의인화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해동문화예술촌은 전라남도 교육청 등과 연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시골 마을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예술공연 ‘주니어 메타버스

(MetaBus)’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타악그룹 ‘아나포’(수복초), 타악그룹 ‘얼쭉’(월산초) 등 행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30일에는 담양 용명초등학교에서 광주웹툰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6시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적 색채감에서 오는 생동감 ‘산수풍경’

김기나 개인전, 30일까지 도화헌미술관

‘생동감 넘치는 입체 산수를 만나다.’

한국화가 김기나 작가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고흥 도화헌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22 도화헌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성과 보고전으로 기획됐다.

‘와유산수(臥遊山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매화 그늘 아래’, ‘낙산마을’ 등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와유산수’ 연작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인다.

김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감과 입체감이 돋보인다. 다양한 천과 색한지, 형질을 오려붙여 입체적인 효과를 내고 오방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연스러운 번짐이 인상적인 전통 수묵산수화의

매력에 현대적 감각을 덧입혔다.

배색이 주는 한국적인 색채감과 생동감이 수묵의 번짐과 깊이감에서 오는 차분함과 대조돼 현대적인 산수화풍을 만들어 흥미로운 감상을 끌어낸다. 전북 남원 출신인 김 작가는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공주대학교, 전주대 대학원 등에서 한국미술사 등을 강의했으며 중학교 미술교사(도서출판 해남 에듀)를 공동집필했다.

김 작가는 갤러리 반포대로 5, 가나인사아트센터, 흥국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등에서 1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